

‘트럼프 대관식’? 美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11월 대선’ 대통령 후보 정식 지명...러닝메이트 선정 트럼프 밀워키 도착 “충격범이 내 일정표 바꿀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피격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공화당은 15일부터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스브로프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식 지명하는 한편 그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를 선보이고, 주요 공약과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다.

공화당은 부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 참석 하에, 전대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화당은 3일차인 오는 17일 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에 이어 최종일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트럼프 집권 2기 비전’을 밝히고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부터 시작해 지난날 마무리된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이미 지난 3월에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당 후보로 나선 2016년 대선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2020년 대선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등극한다.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 대선을 110여일 앞두고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꼽히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하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찌감치 ‘트럼프 대세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정치적 상황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체로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81)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드러낸 뒤 민주당이 후보교체론으로 자중지란에 빠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반사 이익’을 누렸다.

그러던 차에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 발생한 피격 사건과 피격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들며 보인 대담한 모습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실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공화당이 ‘트럼프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를 극적으로 돌파한 서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전대는 마치 ‘트럼프 대관식’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대 개막 전날인 이날 전대 개최지인 밀워키로 이동함으로써 나흘간의 전대 행사에서 공식 후보 지명 이전에도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의 끔찍한 일로 인해 내 위스콘신 방문과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 일정을 이를 연기하려 했으나 나는 ‘충격범’ 또는 암살 용의자가 일정표나 다른 어떤 것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밀워키로 이날 오후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그간의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메시지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포용적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다음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본성을 보여주고, 강하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서 트럼프 지지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 결연하게,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전당대회는 ▲ 15일에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경제) ▲ 16일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이민·범죄) ▲ 17일 미국을 다시 강하게 (외교·안보) ▲ 18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국정 전반) 등을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전국적 관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쏠린 가운데, 이번 전대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부통령 후보 발표는 전대 1~3일차인 15~17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트럼프 총격’ 용의자 단독 범행 차량·집서 폭탄 제조물질 발견”

FBI “범행동기 확인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FBI)은 14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을 용의자 토머스 매슈 크록스(20·사망)의 단독 범행이며 대중에 대한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FBI는 또 용의자 크록스가 정신병을 앓았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암살미수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내테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FBI 수사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 크록스는 이전에 FBI의 수사망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확인했다.

수사팀은 또 사살된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는 AR-15 계열 소총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범죄 현장의 용의자 시체 옆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면서 폭발물질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를 찾아 내 버지니아주의 판타코에 있는 FBI 연구실에서 추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현지 사법 당국 관계자를 인용, 용의자 크록스의 차량과 차에서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그러나 아직 용의자가 왜 암살 시도에 나섰는지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크록스는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21년 1월 20일 진보 계열 유권자 단체에 15달러를 기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AP 통신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유세 직전 한 남성이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돼 경관 한 명이 옥상에 올라가 크록스와 마주쳤고, 그는 경관에게 소총을 겨냥하고 보기도 했다.

경찰관이 사다리 아래로 후퇴하자 크록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비밀경호국(SS) 저격수가 그를 사살했다고 관계자들은 상황을 설명했다.

또 크록스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펜실베이니아의 베델 파크 요양원은 이날 그가 영양 보조사로 근무했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중국 경제 방향타’ 3중대회 개막

‘시진핑 3기’ 플랜 주목

‘시진핑 3기’의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3중대회’가 15일 개막한다.

중국공산당은 15~18일 베이징 정시호텔에서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대회)를 연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 임기 내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인 3중대회는 그간 개혁·개방과 경제 정책 청사진을 선보이는 행사로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관례대로라면 20기 3중대회는 작년 가을께 열렸어야 했지만 최근 정치적 관례가 잇따라 깨져온 흐름 속에 실제 개최는 반년 넘게 늦은 올해 7월로 밀렸다.

이번 3중대회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강조돼온 첨단 산업 주도 ‘신품질 생산력’이나 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인 ‘AI+’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 구호로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육성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전국적인 주택 재고 해소와 재정 지원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세계 개혁을 포함한 지방정부 부채 경감 등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력한 반(反)부패 사정으로 작년에 심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 군부 인사들의 후속 인사 조치와 ‘전량(戰線·누대전사) 외교’를 상징하다 비슷한 시기 낙마한 진강 전 외교부장의 거취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

통상 3중전회를 비롯한 중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 마지막 날 공식 문건으로 결론이 발표된다. /연합뉴스

쿠웨이트 ‘3년치 분량’ 유전 발견

세계 10위권 산유국 쿠웨이트가 3년 치 원유 생산량에 맞먹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쿠웨이트석유공사(KPC)는 파일라카섬 동쪽 알누키타 해상유전에서 면적 96㎢(여의도 33배 크기)로 추정되는 매장지대를 발견해 셰이크 마수알알아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군주(에미르)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KPC는 경질유 21억 배럴, 천연가스 5조1천억 표준입방피트(SCF)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천연가스를 석유로 환산하면 전체 추정 매장량이 32억 배럴에 달한다.

KPC는 가능한 빨리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석유 매장량 6위, 생산량 10위권인 쿠웨이트는 현재 하루 평균 248만 배럴인 원유 생산량을 2035년까지 400만 배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각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각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